

위한 것이다.

또한 시애틀 시에 있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법정 도시계획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커뮤니티단위의 시민운동가들은 시애틀시의 무질서한 확산(sprawl)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워싱턴 주정부에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의 제정을 요구하여 1990년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년 장기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는데, 계획전문가는 2014년까지 5-6만 가구를 추가수용하고 1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완성하였으며, 시는 1994년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근린환경을 파괴하는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계획전문가는 커뮤니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근린의 공간적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계, 즉 센서스구역(census tract)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였고 계획내용도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광대한 분량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애틀 시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의 기본적인 공간 범위는 평균인구 약 6천명으로 구성된 근린생활권이다. 현재 인구규모가 58만 명수준인 시애틀 시는 언덕, 계곡, 수면과 같은 자연지형요건에 의해 약 100여개의 근린생활권(neighborhood)으로 나뉘고 있다.

근린단위의 강력한 주민조직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리더들은 전문가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에 반대하는 투쟁의 단계를 경험하였으며,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

축하기위해 상호 협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커뮤니티조직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동에 우호적인 시장의 협력으로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8년 찰스 로이어(Charles Royer)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근린부서(Department of Neighborhoods)를 신설하게 되었다. 근린부서는 시정부와 근린 조직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초대 부서장으로는 공무원 대신 커뮤니티 활동가인 짐 디어스(Jim Diers)를 고용하였고 13개의 사무실을 커뮤니티에 개설하여 시와의 접촉과 상호교류를 강화하였는데, 현재 75개소로 확대된 상태이다.

시애틀의 경우 기초생활권에 근거한 주민조직의 존재와 적극적인 참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요소를 확인하였다. 시애틀 시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활성화된 것은 기초생활권단위에서 주민조직인 커뮤니티 의회와 다수의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이 시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린연합체를 결성하여 시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을 저지하기도 하고 주정부에 요청하여 성장관리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고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할 경우 시정부와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② 도시계획의 역할구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간위계의 도시 및 지역 계획이 존재하며 위계별 주체의 역할도 다양하다. 공간위계는 주차

원, 지역차원(regional level), 카운티 차원, 도시차원, 근린차원의 5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워싱턴 주차원에서는 1990년 제정된 워싱턴 주 성장관리법(The Washington State Growth Management Act)에 근거하여 인구 5만 이상인 카운티(county)와 그러한 카운티 내에 있는 도시들은 의무적으로 20년 장기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토지이용, 주택, 주요시설물(Capital

[표 4-28] 워싱턴 주의 부서별 관련정책

부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정책내용
교통부	• 살기 좋은 커뮤니티 정책을 주의 교통비전의 중심주제로 설정하였으며 살기 좋은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3가지 사회적 목표의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 - 활기가 넘치는 커뮤니티 - 경제 활력 - 지속가능한 환경 • 살고 싶은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계획은 2가지 요소를 만족 - 효과적인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설계 - 협력적 의사결정과정 • 살고 싶은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 시민참여를 촉진하며 주택, 교통, 교육, 문화적 다양성/풍요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소성을 고양하는 것임
생태부	• 대기 질 • 해안지역 관리 • 수질 • 습지 관리
커뮤니티 · 통상 · 경제개발부	• 커뮤니티 서비스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 경제개발 - 경제활동을 유치, 유지, 확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조직과의 공동작업 - 도심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원 • 에너지 정책 • 중 · 저소득계층 주택(affordable housing) 보급 확대 • 국제통상 • 지방정부 - 성장지원/전략, 성장관리법에 대한 기술적 지원, 문화자원에 대한 기금 • 안전/범죄희생자에 대한 보호 • 고용지원프로그램

자료: 박재길 · 이왕건외, 2006, pp205-206

facilities), 공급처리시설, 농업용 토지, 교통, 경제개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공공안전에 관한 부문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내의 다양한 부서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교통부, 생태부, 커뮤니티 · 통상 · 경제개발부에서 수립한 계획가운데 관련된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계획차원에서는 푸젯사운드 지역위원회(Puget Sound Regional Council)가 대도시권의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중심조직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도시, 카운티, 항만지역, 교통기관, 지역문제와 관련된 주정부의 부서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지역문제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계획정책으로 확정하게 된다. 지역위원회에서는 토지이용, 교통, 경제계획에 대한 3가지 계획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Vision 2020/2040” (장기 지역발전계획 및 삶의 질 계획)
- “Destination 2030” (지역교통계획)
- “Prosperity Partnership” (지역경제계획)

지역위원회는 또한 지역차원의 현황자료를 제공하며 경제, 인구, 교통변화에 대한 예측과 감시기능(monitoring)을 하고 있다.

시에틀 대도시권은 4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는 카운티(county)차원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다음의 부문계획이 적주정합성(livability)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카운티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 도시성장구역의 결정
 - 카운티 내에서 수립되는 도시계획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
 -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
- 교통계획(버스와 경전철)
-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중·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제시)
- 경제개발(저소득 노동계층을 위한 기업지원 및 직업훈련)
- 역사보존
- 개발권 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프로그램(도시-농촌 파트너십)

성장관리법에 따라 시애틀대도시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주 정부의 부문계획에서 제시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동시에 개별 도시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많은 사항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시애틀 시의 종합계획은 근린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설계위원회, 계획위원회, 근린구역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공공참여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또한 수립된 계획은 시의 예산과 연계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도심 적주적합성 프로그램(Downtown Livability Program)”과 같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로그램이 수립되기도 한다.

근린차원의 정주적합성계획은 근린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

고 있다. 대도시권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시애틀 시에서는 근린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근린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근린계획에는 커뮤니티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근린매칭펀드(neighborhood matching fund)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다.⁶⁾



근린매칭펀드를 통해 실행된 프로젝트

자료: Diers, 2006.

시애틀 시에서는 시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도시차원의 장기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과 주민, 커뮤니티의회,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기초생활권 차원의 근린계획(neighborhood plan)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협력적 모델(Collaborative model)이 구축되었다고

⁶⁾ 여기서 매칭 펀드란 수익자의 출자지분에 맞춰 시애틀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하는데 시에서 제공하는 3,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8,500만 달러가 조성되었다. 1989년 15만 달러로 시작하였으며, 2005년까지 늘어, 공원, 벽화 등 3천개 이상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자에게 부족한 약점을 상호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1991년부터 커뮤니티단위의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었다. 수년간의 노력과 커뮤니티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애틀 남동부지역에 대한 집행계획(Action plan)이 완성되었으며 1991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시에서는 연차보고서를 준비하여 사업진척 결과를 보고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상가전면 부·차도·보도의 정비, 놀이터·식재·벽화 등 다양한 사업이 실천되었으며, 다른 지역에도 파급되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1994년 승인된 장기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적 근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시장은 근린단위 주민조직의 요구를 수용하여 근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회의를 통해 11명의 대표를 선발하여 모델을 개발하는데 참여시켰으며, 근린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4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1995년에는 커뮤니티 계획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각 3-4개 근린구역역을 담당하는 10명의 프로젝트매니저를 고용하였다. 매니저는 커뮤니티에 계획의 진척상황을 전달하고 계획위원회 조직의 지원, 컨설팅서비스 등 시정부와 커뮤니티를 원활히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여한 37개 커뮤니티에게는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반대할 경우 종합계획은 자동 연기되었다. 각 커뮤니티에는 계획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커뮤니티의 대표로 구성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를 구성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계획위원회가 설립되면 계획프로세스의 1단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자금을 확보한 계획위원회는 최

대한 다양한 사회계층을 참여시켜 커뮤니티의 관심사항, 비전과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단계가 만족스럽게 완료될 경우 6-1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실행계획인 2단계에서 커뮤니티위원회는 특정이슈에 초점을 맞춘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었다. 완성된 보고서는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다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되어 커뮤니티내 가정, 기업, 부동산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투표를 통해 추천(안)이 개정되면 최종계획이 시의 전략계획실(Strategic Planning Office)로 송부되었다.

전략계획실은 시에 소속된 각 부서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에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고 필요시 지역지구제(zoning)를 바꿀 수 있는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고, 시와 지자체에서 각각 담당할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였다. 시 의회(city council)의 커뮤니티 분과는 개별 근린계획을 검토하며 계획위원회, 커뮤니티, 시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계획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종 결정된 계획을 시의회는 도시정책으로 채택하게 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 모든 근린계획이 승인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계획수립에 2-4년이 소요되었다.

완료된 근린계획을 근거로 계획전문가중심의 장기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과 협력적 모델에 근거한 근린계획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근린계획에서 개발용량을 줄이는 조닝의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와 일자리 창출계획은 수용되었다. 2개 근린만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목표보다 높은 성장목표를 설정하였으며, 37개 근린계획에서 성장을 수용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시켰다. 각 커뮤니티는 장기종합계획에 커뮤니티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근린공동체단위에서는 성장자체보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즉, 성장을 위한 과정이 더욱 중요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근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커뮤니티도 책임감 있는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도시정책방향

시에틀 시장은 수립된 근린계획을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

[그림 4-13] 6개 지역과 지역담당자들(Diers, 2006)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1단계에서는 시를 6개의 지역으로 세분하고, 시의 행정조직을 이들 지역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분권화하였으며, 각 지역에는 매니저를 채용하였다.

매니저는 지역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부서간 프로젝트를 조정하며 커뮤니티, 개발업자, 재단(foundations), 기타 기관으로부터 나온 차입자본을 이용하였다. 2002년까지 수천만 달러가 조성되어 근린계획에서 제시된 교통시설, 가로등, 주택, 공공예술, 공공안전 등의 시설개선에 투자되었다.

2단계에서는 채권이나 세금징수와 같은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8년 시장과 시의회는 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향상요구를 수용하여 196백만 달러의 채권발행을 승인하였는데, 27개에 달하는 도서관 분원의 신설, 증설, 확장 및 도심도서관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1999년 근린계획에서 요구한 9개소의 커뮤니티센터 신·증설과 2개소의 시청분소를 건설하기 위해 36백만 달러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2000년에는 100개 이상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정비하거나 신설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198백만 달러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전체적으로 채권발행과 세금징수를 통해 47천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사업집행을 위해 43



채권발행을 통한 만들어진 도심도서관(Diers, 2006)

천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시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민 스스로 세금을 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단계 실행전략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근린 매칭 펀드(Neighborhood Matching Fund)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매칭 펀드는 커뮤니티의 장소성을 고양하고, 공원과 같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공공의 선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근린매칭펀드는 1998년 1.5백만 달러에서 2001년 4.5백만 달러로 3배 확대되었다. 시에서 조성한 펀드 4.5백만 달러의 절반과 커뮤니티단위에서 조성한 기금은 근린계획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투자되었다. 매칭 펀드는 계획수립이후에도 시민들이 근린단위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시장이 바뀐 후에도 시애틀 시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④ 성공요인과 시사점

미국 시애틀 시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기초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주민조직과 커뮤니티의회가 일상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권발행과 새로운 세금의 신설에도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시장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시장은 근린부서를 신설하여 시정부와 주민조직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시민운동을 부서책임자로 임명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셋째, 시애틀시의 종합계획과 근린단위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만들었으며 합의된 계획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같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현성을 높일 수 있었다.

넷째, 지방정부와 주민이 공동책임을 매칭펀드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시애틀에서 기금확보방안으로 도입한 근린매칭펀드의 경우 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시애틀의 도시계획은 도시전체의 발전과 커뮤니티의 발전을 상호 조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도시차원의 계획은 커뮤니티의 고유특성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의 요구에 치중하는 커뮤니티계획은 도시전체의 발전방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애틀은 도시차원의 장기종합계획과 근린계획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 문화예술도시 사례

(1) 빌바오(Bilbao)

① 사례지역 개요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비스카야주(州)의 주도(州都)로써, 비스케이만(灣)에서 1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며, 네르비온강에 면하고 있다. 인구는 약 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41.6km²이다. 제철과 제강 이외에 금속, 기계, 화학, 유리, 도자기, 담배, 조선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빌바오는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써, 화학공업과 야금업에서 스페인의 최대 중심지이며 금융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곳이다. 해양활동으로 어업과 조선업, 선박수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4] 빌바오시 위치도



본래 빌바오는 15세기 이래 제철소와 철광석 광산과 조선소가 있던 우중충한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빌바오의 철강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로 10여년 고통도 받은 시절이 있었다. 1991년 바스크정부는 몰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산업이라고 판단하고 1억 달러(1,000억원)를 들여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였다. 조선산업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구겐하임 미술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채워나갔으며,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쓰이던 네르비온

강가의 땅이 문화의 요람이 되었다. 1998년 바스크 분리주의자 그룹의 테러 중단 선언도 빌바오가 거듭나기에 견인차가 되어, 창조적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다.

② 문화도시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빌바오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Bilbao Metropoli-30' 과 'Bilbao RIA 2000' 설립을 들 수 있다. Bilbao Metropoli-30은 빌바오 대도시권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계획입안, 조사 및 프로모션을 실시하기 위해 1991년 5월에 설립된 협회조직이다. 1991년 6월에 바스크 주정부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조직(Body of Public Utility)으로써 인정됨과 함께, 법률적으로도 재산권적으로도 100%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써, 1991년 12월에 바스크 정부의 협회등록제도에 등록되어 있다. 빌바오 대도시권에서 전문적인 업무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적 또는 민간 조직이 있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Metropoli-30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크게 3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행해지고 있다.

[표 4-29] 메트로폴리 30의 사업 구조와 내용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를 응용	① 빌바오 도시권 재생프로세스를 모델화할 것 ② 고도 계획 및 운영수법 적용 ③ 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 ④ 국제적인 대도시에 관한 조사연구
재생계획 추진을 위해, 하나로 얻어진 노하우를 개별 혁신적 프로젝트에 적용	① 협회회원과의 정보교환 ② 홍보위원회 지원
노하우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원 및 관계기관이 재생계획 달성에 전력을 투구할 것을 촉진한다.	① 재생프로젝트에 사회적 가치 부여 ② 조정기능 강화

Bilbao Metropoli-30은 문화에 의한 도시재생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협의회로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표 4-30] Bilbao Metropoli-30의 추진체계

Bilbao Metropoli-30						
공적 기관	민간기업 28개	미디어 업계 4개	대학 4개	연구소 3개	업계단체 22개	준회원 32개
바스크주, 비스카야현, 빌바오시, 기타 27개 기초자치단체, 바스크주 기초자치단체협회, 빌바오현만국, 빌바오시·비스카야현 수도권, 빌바오 국제교역협회, 빌바오시 지하철공사, SPRI, EUSKOTREN, Municipality of Balmaseda Public Bodies	IBM과 같은 국제기업, 금융기관, 통신회사, 컨설턴트회사 등	신문사 등	바스크 주립대학 등		빌바오상공회의소, 건설업협회, 구시가지상점회, 토목협회, 고업기술협회, 변호사회, 적십자, 건축협회 등	BBVA재단, 빌바오 미술관,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구주, 유럽을 중심으로 한 23개국의 대사관, UNICEF 바스크 협회 등

Bilbao RIA 2000은 1992년에 설립된 정부계 공동출자회사로써 공공사업, 경제부와 그 관계기관(공공사업 토지공사(SEPES), 빌바오 향만국, RENFE 철도, FEVE 철도)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함께, 바스크주의 행정기관(바스크주, 비스카야현, 빌바오

시, 바라카르도시)이 대등한 입장에서 설립되었다. RIA 2000은 빌바오시를 재생하기 위한 공공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계획을 행하는 조직체이다. RIA 2000의 목적은 빌바오 대도시권의 쇠퇴로 발생하는 황폐한 지역 및 공업지역을 재생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및 교통·환경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행정조직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실시되며, 실제로 이 조직은 행정기구의 틀을 뛰어넘는 선구적인 기업체로, 관계기관이 만장일치로 지원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점이 큰 특징이다. RIA 2000의 경우 이사장은 빌바오 시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국가의 개발부처의 도시기반 및 교통장관으로 된다.

③ 대표적 추진사례

대표적인 추진사례로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 추진’, ‘네르비오 에버뉴(빌바오 중심도시축)’, ‘중심시가지 (Abandoibarra) 지구 재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추진사례로 우선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의 추진이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상징으로서 1997년 10월에 개관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시설 및 운영·사업 등의 개요와 개관 후 5년간의 실적 및 경제과급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빌바오는 현재 유럽의 손꼽히는 문화도시지만 원래 문화와는 거리가 먼 도시였다. 1991년 바스크 정부는 시를 몰락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빌바오시는 1997년 1억 5,000만 달러를 들여 구겐하임 미술관을 완공하였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한 빌바오는 이후 문화도시로의 대변신에 성공하였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보려고 이 작은 도시로 모여들었으며, 건축학도들은 물론, 문화 예술이나 관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가 보고 싶은 곳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미술관 하나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르비오 에버뉴 프로젝트는 네르비온강 하구 좌안의 공업지대를 15년간의 기간과 2억 4천만 유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개발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근대적으로 기능적인 위대한 도시축에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바스카야현의 핵심도시의 네르비온 하구역의 도시개발에 의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하안(河岸)의 재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1994년 빌바오의 부분적 지역개발 개정안 속에서 처음으로 책정된 것으로 건축적으로는 5개의 시기로 나누어져 실시된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지역을 관통하는 대로, 간이철도, 자전거 레인, 보행자도로, 빌바오 국제전시장, 주택, 서비스용 도로, 다리, 여가 및 레크레이션 지역 등등이 정비되어 빌바오에서 엘 아프라향 사이의 하구 좌안에 새로운 도시공간이 생겨날 예정이다.

중심시가지(Abandoibarra) 지구 재개발은 빌바오 대도시권 추진 기구인 Bilbao RIA 2000에 의한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이다. 도시 중심부에 입지하는 이 지구는 약 35만㎡의 넓이를 가지며, 근래까지 항만시설 및 컨테이너용 철도역, 조선소가 입지하고 있던 장소이다.



빌바오 전경

[표 4-31] 구겐하임 미술관 추진의 주요 내용

구 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정책내용
위 치	• 네르비온 강과 접해 있고, 한쪽 면의 끝은 이 도시의 주진입로인 거대한 Puente de La Salve에 관통되어 있음
전 략	• 1991년 2월 바스크주 정부가 구겐하임 재단에 빌바오시의 재개발 참가를 요청 • 구겐하임 재단의 '세계 각국에서 거점 만들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조화한 세계적 미술관 그룹을 창조한다' 라고 하는 장기계획의 채택으로 인해 빌바오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991년 말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기본합의가 체결됨
설 계	•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지어짐 •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 건물'이라는 극찬을 얻은 작품임
건설비	• 바스크정부가 부담하고, 미술관은 바스크주정부의 소유가 됨
운영주체	• 바스크주정부와 Solomon R Guggenheim 재단이 설립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재단 • 바스크주정부는 매년 미술관의 운영예산에 보조금을 지출 • 구겐하임재단은 주요 컬렉션 및 프로그램에 더하여, 기획과 운영의 전문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술관의 운영을 행하고 있음
규모 및 시설	• 부지면적 : 32,700㎡ • 건축면적 : 28,000㎡ • 연상면적 : 24,000㎡ • 전시공간 : 10,560㎡(20실) • 공공공간 : 2,500㎡ • 기타시설 : 도서관, 극장, 사무실, 뮤지엄 스토어, 레스토랑 및 카페
외관 특징	• '상자 모양'이라는 건물의 고정 관념을 완전히 깨트림 • 건물의 별명은 '메탈 플라워'로서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티타늄의 금속 패널들과 구불구불하여 춤을 추는 듯 한 자유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전체의 형태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나며 실내 공간 또한 그 역동성의 연장으로서, 시각적 체험의 대상으로서 존재 
전람회와 입장자 수	•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간 개최된 전람회수는 소장품전 26회, 기획전 21회에 달함 • 2000년 1일 입장자수 3,000명을 초과한 전람회는 세계에서 27건으로 그중에서 7건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전람회가 차지하고 있음

레저 및 비즈니스, 문화, 주택지, 녹지, 하안 등이 정비될 예정이지만, 이것은 이전과 같이 도시공간을 분단하는 장벽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골격으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시의 2가지 중요한 랜드마크인 구겐하임미술관과 Euskalduna 국제회의장, 콘서트홀 사이에 위치하여 네르비온강 하구에 면하여 위치한다.

이밖에 Alhondiga 문화스포츠 센터, 빌바오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④ 성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창설은 빌바오라고 하는 지역환경 속에서 문화적 기반정비가 도시개발과 경제적 활성화 쌍방을 달성하는 전략이 된다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바스크 주의 경제활동의 강화에 큰 역할을 남아 왔다. 미술관 사업에 의해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갖게 된 직접지출은 7억 7,500만 유로 이상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것은 미술관개설 당시 투자액의 10배에 해당된다. 1997년 개관 당시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의 구겐하임 미술관 활동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2]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제파급효과(100만 유로)

	1997	1998	1999	2000	2001*	TOTAL
Direct expenses	40,5	190,4	202,8	192	150	775,7
GDP generation	31,5	148	168,3	157,5	150	655,3
Employment**	832	3,906	4,161	4,415	3,937	4,100
Treasury revenue	5,9	27,5	29,3	27,8	27	117,5



구겐하임 미술관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경우 개관후 1년간 136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99년 추산 관람객은 82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빌바오 미술관과 더불어 도시

재생사업에 의한 문화도시 여건 조성은 방문객을 끌어들이었으며 이들이 쓴 돈은 310억 페세타에 달한다. 구겐하임과 관련된 소비들로 인하여 바스크 지역경제에 1년간 1억 6천만 달러(1,600억 원)를 기여하고 있다.

⑤ 성공요인 및 시사점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정비 등 문화전략에 의해 변화를 시도한 사례이다. 미술관만 정비한 것이 아니라 미술관을 중심으로 신공항 및 지하철망, 고속도로망과 같은 교통인프라 정비를 함께 하였으며 도시의 전반적인 공간질서의 재편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방문객의 유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협력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본 것이다.

이러한 빌바오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관련 프로젝트의 연계방안 도모이다. 빌바오는 단일프로젝트가 아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하나의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들과 연계시켜 상승효과를 도모하였다. 빌바오의 도시재생정책은 단순히 시설물 위주로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지역을

문화적 수준 판단의 지표로 삼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된다.

둘째, 상징적 프로젝트의 추진이다. 대규모 도시기반정비 및 도시 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상징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서구에서 창조도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셋째, 지속가능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양적·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빌바오의 사례처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자적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창조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 요코하마(Yokohama)

① 사례지역 개요

요코하마는 일본 가나가와 **[그림 4-15] 위치도**

현(神奈川県)의 현청소재지이며 항구도시이자 일본 최대의 공단 밀집지역인 게이힌공업지대(京浜工業地帯)의 일부에 해당한다. 혼슈(本州)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쿄만(東京灣) 서쪽 연안에 자리 잡은 요코하마는 원래 조그만 어촌이었으며, 1859년 이웃한 가나가와가 외국인의 거주와 교역이 가능한 항구로 선정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대외무역 증가와 해운업 발달에



따라 점차 성장했으며,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완전히 개방되었고, 1889년 가나가와와 요코하마를 합쳐 요코하마시가 탄생하였다. 이후 일본 제2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주요항구이자 산업 중심지가 되었다.

인구는 약 360만 명이며, 면적은 433km²으로, 약 15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요코하마는 부근의 가와사키(川崎)와 함께 게이힌 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화학·기계·1차금속·석유화학·자동차·조립금속·조선 등의 중공업시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본 최대의 요코하마 항에서는 주변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원자재 수입품과 다양한 수출품이 선적·하역되고 있다. 많은 주요은행과 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요코하마의 상업지구는 항만 주변에 밀집하고 있다. 사쿠라기(木) 역 근처에 있는 상업지구의 북쪽 끝 부분에는 쇼핑 중심지인 이세자키(伊勢佐木) 거리가 있으며, 공장지대는 해안을 따라 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19세기 중반에 개국된 이래 무역항구로서 발전을 거듭해온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부설되었으며, 그밖에도 건설, 염차, 해산물을 수출하는 등 외국 문화와의 접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1889년 4월1일 시제(市制)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 면적은 5.4km², 인구는 약 12만8천 명에 불과하였다. 그 후 내륙부를 편입시킴과 아울러 해변지역의 매립을 통해 시역을 확대해 왔지만 1923년의 대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은 상공업지나 주택지로서 크게 발전하여 도시기반정비도 충실히 진전되어 제 2의 대도시가 되었다. 근대건축물, 미나토미라이21, 차이나타운 등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나타난다.

② 문화도시 추진계획

요코하마시는 문화예술·관광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 3월에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관광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검토위원회’에서 ‘문화예술·관광진흥에 의한 도심 재생을 목적으로’라는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다. 우선 아래 그림과 같이 문화예술·관광을 키워드로 한 요코하마다운 도심 비전을 새로이 구축하고, 도심부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림 4-16] 요코하마 도심 비전



자료 : Art NPO 포럼 · 横浜 포럼 자료(2003)

도심부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이 요코하마 도심의 독자적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둘째, 시민과 기업이 도시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므로 도시 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도심부의 역사적·문화적 토양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에 의한 활성화 효과는 첫째, 문화예술에 가까워지는 환경이 형성됨과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기실현에 연계되는 것, 둘째, 방문객이 증가하고 교류가 일어나 도시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 셋째, 관련 산업의 집적 등 새로운 전개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

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활성화 전략 방침으로는 예술가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고 엔터테인먼트시설 및 관련 산업을 유치하며 기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4-33] 요코하마 도심부 활성화 전략 방침

① 예술가의 활동공간 확대	- 특히 연습공간, 교류공간을 증대 - 역사적 건조물 등을 활용한 예술가의 활동공간만들기
② 엔터테인먼트시설 및 관련 산업 유치	- 미나토미라이21지구 king축 주변에 시설 유치 추진 - 임대 스튜디오 및 연습장, 발표공간 등을 갖는 시설(시민예술촌) 유치 진행
③ 기존 문화예술 자원의 활용	- 미술관, 화랑, 홀 등 기존시설의 네트워크화 도모 - 트리엔날레, 영화제 등 문화적 이벤트를 도심부 전체에서 전개

또한 활성화 지원 방책은 시민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4] 요코하마 도심부 활성화 지원 방책

City Promotion 관광기능 혁신과 전략적 정보발신	시민과의 협동에 의해 (가칭) 요코하마 관광 프로모션 포럼, 정보발신거점의 설치 및 운영
질 높은 도시공간 창출	전략 zone의 설정, 중점지구에서 조기 사업전개, 도심부에서 양호한 경관 유도
시민과 연계한 시설운영 및 관리	NPO 등에 의한 운영 및 사업실시 추진, 토지활용촉진 아이디어 모집

요코하마시는 2004년 1월, ‘문화예술창조도시 - Creative City YOKOHAMA 형성을 향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사람의 창조성을 활용한 마찌즈쿠리⁸⁾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7) 文化藝術・観光振興による都心部活性化検討委員会, 2004년1월14일.

8)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에 관한 개념은 다음 글의 73쪽 참조. 오민근(2003), ‘마을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활성화’, 문화도시문화복지 Vol. 14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요코하마시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개념이다. 문화예술은 시민생활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관광과 새로운 산업 등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코하마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정책분야로 언급하고 있다. 창조성이 넘치는 감동을 낳는 도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침을 바탕으로 요코하마시의 도심, 더 나아가서는 도시재생의 비전으로써 ‘문화예술창조도시 Creative City YOKOHAMA’를 표방하고 있다.

- 첫째, 요코하마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한다.
- 둘째, 질 높은 매력적인 공간을 갖춘다.
- 셋째, 예술 및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 낸다.
- 넷째, 시민 및 산업의 새로운 활동을 일으킨다.

[그림 4-17] 창조성에 의한 도시재생 비전



③ 대표적 추진사례

대표적인 추진사례로서 ‘요코하마시의 BankART 1929’, ‘요코하마 도심 역사적 건축물 활용실험사업’, ‘BankART School’, ‘요코하마 National Art Park’, ‘요코하마 영상문화도시’ 등을 들 수 있다.

BankART 1929는 1929년에 원래 은행 건물로 지어진 구 제일은행과 구 후지은행 건물을 예술문화로 이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것이다. 요코하마의 도심부 특히 關内지구에는 요코하마의 역사를 상징하는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있어 도시의 개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예술·관광진흥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도심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여 구체적 조치로써 향후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민’ 과의 협동과 예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Art NPOs)들의 아이디어, 활동력, 창조성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4-18] 요코하마 도심 역사적 건축물 활용실험사업 운영방안



요코하마는 도심 역사적 건축물 활용실험사업(가칭 : Creative City Center)을 통해 새로운 요코하마 문화를 창조하고 NP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사업운영, 산업 및 마찌즈꾸리에의 전개를 지향하고 있다. 실험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등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역할은 문화예술에 관한 구체적 운영사업의 실험을 행하는 단체(사업운영단체)의 선정, 사업운영단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책의 검토 및 사업 평가를 맡고 있다.

BankART School은 요코하마 및 馬車道에 남아있는 역사적 건조물을 예술문화에 활용한 BankART1929 프로그램의 하나로 2004년 4월에 개교하였다. 다루는 분야는 미술, 연극, 영화, 음악, 건축, 댄스, 사진 등으로 그 범위가 넓으며, 강사는 각 분야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은행이었던 장소에서 개최되는 ‘예술학교’

행 건물에 요코하마시가 영상문화도시의 일환으로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를 유치하여 2005년 4월에 개설하였다.

④ 성공요인 및 시사점

요코하마시는 기존의 관례인 신규시설 설치를 통한 문화예술진흥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도시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인접 기존 관광자원인 미나토미라이21, 차이나타운, 야마시타공원, 모토마치물 등과의 연계를 통한 도심재생 및 관광에의 활용을 위해 내셔널아트파크를 구상하여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활동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근대건축물이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공통 문제였던 운영 관리 주체의 지속성 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요코하마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적용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내 존재하는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예술활동 및 거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를 재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이라는 것으로 도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도시의 경관수준을 높이는 일이며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활성화에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를 도시내 유희 공간 및 유희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내 문화수준을 높이는 좋은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셋째, 문화정책으로서의 예술의 진흥은 물론 도시정책으로서의 예술의 진흥도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에서의 창작활동자는 물론, 창작활동의 효과를 보고 싶어하거나 창작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해당지역의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

4) 환경생태도시 사례

(1) 프라이부르크(Freiburg)

① 사례지역 개요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에 있는 인구 20만의 대학도시로서 문화·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500년 이상된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약 3만명의 대학생이 있고, 인근에는 ‘흑림’(Schwarzwald)이라는 유럽최대의 산림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 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행정조직·교통·에너지·폐기물 등에서 매우 우수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86년 환경보호국을 설치하고, 1990년에는 환경부시장제를 도입하였다.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독일환경 원조재단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에서 151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게 된 것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프라이부르크 인근지역인 빌(Wyhl)이라는 곳에 국책사업

[그림 4-20]
프라이부르크의 지리적 위치



자료 : NADO(2003)

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자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민운동은 시정부와 시의회의 동조를 얻었고 결국 원전건설계획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쓰레기, 교통부문에서 특색 있는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 에너지는 원자력발전에서 탈피 ‘지역자가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소비전력 80% 자급 계획’ 수립, 전력기본요금 폐지 및 대형소비자 우대조치 철폐 등 절전 유도 전력요금 제도의 도입추진,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건축물 보급 등에 앞장서고 있다.

폐기물정책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화, 각종 공공행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 독일 전역에 이를 전파하였으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기계·생물분해방식을 도입해 처리하는 등 다이옥신을 발생히는 소각처리문제에서 완전 탈피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있다.



교통 정책

교통부문은 대중교통 확대와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도심상가 자동차 진입금지(상품반입만 허용), 자동차소음과 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가 속도제한(시속 30km이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도 총 160km가 넘는다.

이러한 프라이부르크를 뒷받침하는 힘은 BUND, 외코메디아, 외코인스티튜트, 국제환경지자체 등 60여개의 환경NGO단체와 시민들에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며 시와 파트너십을 잘 형성하고 있다.

② 환경생태도시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프라이부르크 시 의회는 1986년 에너지 자립을 기본으로 한 ‘시 에너지 공급기본 컨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너지 공급기본 컨셉을 통해서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자립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절약 정책이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절전형 전구’를 각 가정에 보급하거나 ‘에너지절약 주택’을 개발·보급하는 시책을 펴는 정책이다. 둘째, 에너지효율화 정책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해 지역발전을 하는 것 등이다. 셋째, 에너지 다양화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시는 1992년부터는 아예 시의 공공건물이나 시가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토지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저에너지 건축’만을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절전형 전구’ 보급, 태양광발전, 열병합발전, 천연가스발전, 소수력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자립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 활용 확대를 시정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나 가정에 대해 보조금이나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된 태양에너지 가운데 자체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에너지는 시(市)소유 전력회사인 FEW(Freiburger Energie und Wasser versorgungs)에서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 한편 지붕이 있는 자가(自家)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태양광발전회사에 소액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태양에너지전시회가 개최되어 태양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태양에너지를 비롯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확대하려는 의도는 기후보호와 환경보호, 에너지수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재생가능 에너지가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대체할 전망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개발 보급과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이러한 태양에너지 정책은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③ 대표적 추진사례

프라이부르크는 독일내에서 햇빛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태양에너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통합에 있어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은 물론 유럽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앞서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양

광발전시설은 쉽게 볼 수 있다.

1995년 드라이잠축구경기장 서쪽 스탠드 지붕에 대형 태양광발전장치가 설치되었다. 태양광발전장치는 ‘시민참여형’으로 이루어졌다. 태양에너지 모듈(Module) 설치를 시민들에게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생산된 전기는 FEW에 되팔고 그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경기장의 태양광발전장치는 연간 2만 5천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경기장 전체 전력사용량의 60%에 해당된다.



드라이잠 축구경기장 태양광발전장치



솔리어베르크의 태양광 연립주택



솔라하우스

프라이부르크 시내에는 ‘헬리오트롭’ (Heliotrop)이라는 유명한 태양주택이 있다. 이 주택은 ‘태양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가 설계하여 지은 집이다. 그리이스어로 헬리오트롭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한다’라는 뜻으로 이 집은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회전한다. 헬리오트롭은 외부지름 11m의 3층짜리 원통형의 집으로 건축 재료는 나무를 사용하였다.

[그림 4-21] 프라이부르크 태양에너지 시설 지도(김해창, 2003)



- | | |
|----------------------------------|--|
| 1. 노이에 메세(신 박람회장/태양광 발전) | 16. 상공회의소(슬라에어컨) |
| 2. 외코스타치온(생태학습과/태양광 교육센터) | 17. 웨펠가(街) 빌라(태양광 재개발 고급주택) |
| 3. 솔라정보센터(태양광 기업 및 태양광 서비스업체) | 18. 브라우에라이 군터(태양광 발전) |
| 4. 프라운호프 ISE(슬라에너지 연구소) | 19. 카를릭 학생기숙사(태양광 패널) |
| 5. 대학병원 구내식당(태양광 시설) | 20. 프라이부르크 SWR 스튜디오(태양광 발전) |
| 6. 대학병원(태양광 냉방) | 21. 드라이잔 축구경기장(태양광 발전) |
| 7. 파밀리엔하임 빌머스도르퍼가(街)(태양광 패널) | 22. 슈트란트바트(해수욕장/태양광 시설) |
| 8. 리젤펠트(슬라 건축) | 23. 성 페터 운트 파울(태양광 전기시설) |
| 9. 외코인스티튜트(응용생태학연구소) | 24. 국제슬라에너지협회 ISES(슬라에너지 세계본부) |
| 10. 졸라 파브릭(슬라공장 주식회사) | 25. 보봉 학생기숙사(태양광 시설) |
| 11. 린덴(슬라 건축) | 26. 보봉 파시브하우스(슬라 건축) |
| 12. 프라이부르크 태양광센터(태양광 패널) | 27. 슬리아베르크 솔라주택단지(슬라 건축 및 통합지붕 태양광 발전) |
| 13. 프라이부르크 솔라하우스(슬라 건축 및 태양광 연구) | 28. 보봉 솔라주차장(태양광 발전) |
| 14. 중앙역 솔라타워(태양광 패널) | 29. 헬리오트롭(슬라 건축) |
| 15. 빅토리아 호텔(오염물질 무배출 호텔) | ① 졸라레기온 포럼 ⑤ 학교의 태양광 시설 |

외벽의 절반은 단열유리로, 또 다른 절반은 단열재로 되어 있어서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유리면이 태양을 향하고 여름에는 단열효과가 뛰어난 단열재가 태양을 바라보며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옥상위에는 태양광발전용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은 집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방향을 바꾼다. 이 장치로 전력을 생산하며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FEW에 판매하고 있다.



헬리오트롭

태양에너지와 자동차 역제 그리고 시민참여가 조화되어 있는 곳이 생태주거단지인 ‘보봉’ (Vauban)이다. 보봉지역은 도심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92년까지 주둔했던 프랑스군이 떠나자 시의회는 이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개발방안으로 생태마을 조성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자치모임인 ‘포럼 보봉’이 형성되었다.

이 포럼은 생태마을 조성원칙으로 태양열을 주에너지원으로 채택하고 자연재료로 건축물을 지으며 주거지역에서 차량통행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주차장을 주택단지



보봉(Vauban) 주거단지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단지에 주차대수를 엄격히 제한하였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40여세대의 ‘파시브주택’은 필요한 에너지전체를 태양열로 충당하고 에너지절약이 최대화되도록 설계되었다.

보봉마을 건너편 슬리어베르크(Schlierberg)에는 태양광 주택단지가 세워져 있다. 이 주택단지는 약 150여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잉여에너지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주택은 태양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남쪽을 향해 있고 지붕에는 태양광전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께 30cm의 무기질섬유로 뒤덮여 있다. 창문과 환기장치도 열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잉여에너지의 주택단지 온수는 단지 한쪽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전기는 지붕에 설치된 총면적 500㎡의 태양광 전지판이 담당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6만kWh에 달한다. 단지내에는 열병합시설을 설치하여 난방열뿐만 아니라 전기도 공급한다. 남은 전기는 전선망을 통하여 판매된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로만 자급자족하는 ‘솔라하우스’ 시험제작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프라운호프 태양에너지연구소에서 세운 이 솔라하우스는 제로에너지하우스라고도 불린다.

이 건축물은 2층짜리 주택으로 최신에너지 절약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하여 난방·온수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가스나 기름도 일체 공급받지 않고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자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에너지제로 하우스는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 보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

만 점차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솔라산업의 성공가능성은 솔라공장(Solar Fabrik)과 솔라전력주식회사(SAG)를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솔라공장(Solar Fabrik)은 1996년 태양전지패널을 가능한 저렴하게 생산하고 지역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8명으로 시작하여 2002년에는 7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솔라공장은 독일전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모듈의 1/4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솔라공장을 설립한 게오르크 잘바모저(Georg Salvamoser)는 1998년 태양광발전에 시민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솔라전력주식회사(SAG)를 설립하였다. SAG는 필요한 자금을 솔라주식으로 충당하였다. FEW는 SAG가 생산한 연간 6만5천kWh



솔라공장 본사 · 공장건물

의 태양광전력을 매입하였다. 1999년 SAG가 상장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0년 4월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시행돼 솔라전력을 1kWh당 99페니히로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의 시장성이 더욱 높아졌다. 프라이부르크는 솔라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소득 향상, 지역발전을 꾀하고, 미래유망산업에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성과

태양에너지는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199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라이부르크 시민 70%가 다소 비싸더라도 솔라전기를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실제 친환경전기는 34.73페니히이고 일반전기는 31.30페니히로 친환경전기가 3.43페니히 더 비싸지만 FEW에 친환경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은 시민들의 주거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다. 새로 지은 집들은 대부분 벽을 두껍게 만들고 남쪽 면에 커다란 창을 내거나 온실을 만든다. 이른바 ‘자연형태양열주택’ 들이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난방연료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개조가 어려운 기존 주택들은 지붕에 집열판이나 태양전지를 얹어 물을 데우거나 전기로 적극 활용한다. 이웃한 수십 채의 집들이 지붕 위에 나란히 검은 집열판이나 태양전지를 얹고 있는 모습은 시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⑤ 성공요인 및 시사점

프라이부르크가 오늘날 독일의 환경수도가 된 배경에는 시민참여와 환경운동의 영향이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시민과 행정이 서로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는 70여개 정도의 환경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있고 500여명의 전문활동가가 있다. ICLEI(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유럽사무국,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본부, 태양에너지연구소인 프라운호퍼연구소, 독일 최대의 환경보호단체인 분트(BUND: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지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분트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과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정치·행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분트는 원전건설반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드라이잠축구경기장 옥상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등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도시의 건설에 시장(市長)의 역할이 매우 컸다. 로프 뵘메(Rolf Böhme) 전(前)시장은 1982년부터 2002년 6월 재임시까지 ‘환경최우선’을 시정의 목표로 삼고 태양에너지 보급·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결과 프라이부르크는 태양도시가 되었고 1992년 독일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될 수 있었다.

(2) 꾸리찌바(Curitiba)

① 사례지역 개요

꾸리찌바시(市)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남서쪽으로 약 8백km(상파

울로에서 4백km) 떨어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파라나 주의 주도이다. 평균 고도 908m의 아열대 지방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총면적이 432km²로 서울(총면적 605km²)과 비교할 때 7/10정도 규모인데, 거대한 숲에 도시가 묻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숲과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꾸리찌바의 2005년 기준 인구는 1,757,904명이다. 꾸리찌바 메트로폴리탄은 26개의 지자체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센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총인구는 3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42년에 시로 승격되었으며 1853년에 브라질 파라나 주의 수도로 지정되었다. 이 때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꾸리찌바는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입지적 우위 때문에 서비스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꾸리찌바에서의 인구성장과 면적 확대는 주로 파라나 주의 농업기계화와 수출작물의 개발 때문이었다. 1950년에 인구 18만 명의 소도시에 불과했던 꾸리찌바는 브라질의 산업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여 1995년에는 220만 명(광역대도시권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꾸리찌바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산업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실업율도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꾸리찌바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제3세계의 대도시들과 유사한 도시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농업기계화로 밀려난 이주민들이

[그림 4-23] 꾸리찌바 위치



도시로 몰려들었고, 무허가 정착지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강과 하천은 자연적인 배수로에 대한 고려 없이 인공수로로 전환되어 도심지역에 빈번히 홍수를 가져왔다. 또한 급증한 자동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이 나타났다.

이러한 꾸리찌바의 상황은 1962년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 취임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시 공무원들은 시민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도시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갔다. 이 결과 꾸리찌바는보전 및 시민정신이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 언론들은 꾸리찌바를 생태환경도시의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1992년 월드워치연구소가 발간한 지구환경보고서는 꾸리찌바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도록 권고하였다. 「타임」지는 꾸리찌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했고, 로마클럽은 1995년 세계 12개 모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유엔 인간정주회의의 도시발전 대표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1998년 6월 8일자)로부터 ‘가장 현명한 도시(Most Smart Cities)’의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다.

② 추진 배경 및 주요 정책

꾸리찌바가 숲의 도시로 거듭나기까지에는 1971년부터 이 도시의 행정을 맡은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임명제 시장과 3회의 민선시장을 거치며 급속한 인구증가, 환경오염, 교통체증, 문화유적 훼손 등으로 위기에 빠진 시를 탈바꿈 시켰다.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의 취임 이후 꾸리찌바 시의 정책 기조는 ‘환경

을 중시하는 도시정책', '시민을 우선시하는 도시정책', '효율적인 도시정책'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를 꾸준히 지켜가며 추진해왔다. 꾸리찌바의 도시환경정책은 '꾸리찌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꾸리찌바 종합계획은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으로 탄생하였다. 공무원들은 도시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를 변화시켜 나갔다.

1970년대 초부터 꾸리찌바 시는 환상형 도로시스템을 선형 성장에 역점을 둔 선형 도로시스템으로 개편한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토지이용법률을 제정하였다. 꾸리찌바 종합계획은 간선교통축의 도로를 평형도로로 설계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많은 토지를 수용할 필요도 없고 꾸리찌바의 경관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꾸리찌바는 도로망계획에서 도로위계의 개념을 잘 활용하였다. 주요 간선교통축을 이루는 '구조적 도로', 이들 구조적 도로를 연결시키는 '교통순위우선도로', 그리고 '집산도로'와 '연결도로' 등으로 구분된 도로 위계 설정은 꾸리찌바의 대중교통체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개선된 꾸리찌바의 수송체계는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급행버스 노선들, 구역 간을 운행하며 급행버스 노선들을 연계시키는 버스 노선들, 한 구역 안에서 빈번하게 운행하며 동네들과 주요 대중교통체계를 연결시키는 버스 노선들로 이루어졌다. 이 체계는 통합된 대중교통망으로서 특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공원녹지정책으로서, 꾸리찌바는 먼저 부족한 녹지를 보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17개의 공원을 새로 조성하였다. 공원 확충을 위해 도시 주변의 녹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

시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공장이나 공공시설 이전 적지를 공원으로 활용하였다. 이 결과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인당 녹지면적이 0.5m^2 에 불과했으나 2000년경에는 무려 52m^2 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9m^2)의 6배에 달하며 서울(2005년 산림청 조사 결과, 5.1m^2)의 10배가 넘는다. 또한 녹지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꾸리찌바 중심 외곽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간선도로에서 의무적으로 5m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식재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주거지 면적의 50%에만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꾸리찌바 총면적의 1/3은 저밀도 지구로 지정했고, 도로망을 따라 많은 양의 식재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나무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 모든 나무는 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허가없이 나무를 벨 수 없다. 어길 경우 벌금(미화 300~500 달러)이나 벤 나무의 두 배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관리를 잘 하는 가정이나 건물주에게는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

무질서한 도시성장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하천 역시 꾸리찌바 종합계획을 통해 관리되었다. 하천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고원으로 개발하거나 하천유역은 나무를 식재하고 각종 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꾸리찌바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꾸리찌바 산업단지를 보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꾸리찌바의 개발 철학과 환경 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 공장시설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시켰고 나머지는 녹지, 주거지, 가로망 및 자전거도로, 서비스시설로 할당하였다. 인근에는 인공호수를 건설하기도 했다.



원통형정류장에 도착한 이중굴절버스
자료: 박용남(2002), 「꿈의 도시 꾸리찌바」



식물원 전경

한편 꾸리찌바 종합계획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정책 추진의 초점이 두어왔다. 꾸리찌바의 시민 우선 정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 프로그램이며, 빈민층을 위한 주택프로그램, 대중교통활성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꾸리찌바로 유입되는 빈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꾸리찌바 시는 개인 소유의 농장을 매입하여 이곳을 식물원으로 조성했다. 식물원은 단순한 구경장소가 아니라 빈민들이 농업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졌다. 또한 꾸리찌바 시는 쓰레기를 교환할 수 있는 녹색교환정책을 도입하였다. 빈민들은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주고 돈을 받는다. 기본적인 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빈민구제책을 연결한 것이다.

꾸리찌바의 성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다목적 사업을 활용하여 한정된 도시재원으로 도시정책을 꾸려나가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사업이다.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중량 지하철의 건설을 지양하고 비용 및 효율측면에서 뛰어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시설의 재활용은 여러 곳에

서 볼 수 있다. 쓸모없던 탄약기지를 아름다운 원형극장 형태의 ‘빠이올 연극관’으로 개조하여 꾸리찌바 문화혁명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또한 버려진 양초 및 아교공장을 ‘창조성센터’로 재활용하여 이곳에서 유아 및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꾸리찌바의 역사가 시작된 3개의 광장을 아케이드로 전환시켰고, ‘바라웅의 저택’도 문화센터로 개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③ 추진체계

1954년 꾸리찌바 시청에 도시계획 부서가 만들어지고 꾸리찌바 도시계획위원회(COPLAC)가 설치되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은 꾸리찌바 도시계획의 수행을 주도하지만 최대한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꾸리찌바가 속해 있는 빠라나 주의 경우 ‘꾸리찌바 광역권조정협의회(COMEC)’를 설치하여 꾸리찌바 내의 14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였다. 특히 공공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시민 위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이때 민간에서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1964년 아가쉬 도시계획(1943년 수립)을 수정한 예비도시계획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꾸리찌바 종합계획의 토대가 되었다. 꾸리찌바의 도시계획은 꾸리찌바 종합계획의 입안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1966년 창립되었던 ‘꾸리찌바 연구 및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후신인 ‘도시계획연구소(IPPUC)’가 이끌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 50여 명이 오늘날의 꾸리찌바를 만드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꾸리찌바의 도시 및 교통관리는 도시공사(URBS)에서 맡고 있다.

꾸리찌바가 환경생태도시로 명성을 날리게 된 데는 토지이용법률도 큰 역할을 하였다. 꾸리찌바 시는 1975년에 토지이용법률에 의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용도지역을 6개(중심, 주거, 공업, 서비스, 농업, 특별지역)로 구분했고 건축밀도 및 층고를 제한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도지역위원회를 두어 경우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다.

④ 성과

꾸리찌바는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이 흔히 겪는 도시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창조적인 도시환경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이제 꾸리찌바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이것이 꾸리찌바에서 추진한 정책들의 종합적인 성과이다. 딱히 볼 만한 경관이 없어도 꾸리찌바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중이다. 일년에 세계 각국에서 수십 개의 연구 및 시찰단이 방문, 도시 행정에 관한 각종 자료와 현장안내를 요청하고 있다.

꾸리찌바가 추진한 환경을 중시하고, 시민을 우선시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각종 정책들은 당초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특히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체계적인 도로체계와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으로 꾸리찌바는 교통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 특히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은 기존의 도로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이 가능하고 교각이나 레일, 터널, 지상구조물 등 불필요한 도시시설물을 건설한

필요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유리하다. 또한 천연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1인당 교통연료 소비량을 30% 절감할 수 있었다. 기존 도시시설의 재활용 정책은 비용의 절감과 함께 역사문화의 보존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꾸리찌바의 쓰레기 정책은 빈민복지 정책과도 결합되어 빈민들에게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과 영양 개선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변 농촌지역에서 채소, 과일 등을 생산하는 소농의 잉여생산량을 흡수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쓰레기 청소 등의 작업에 은퇴자 및 실업자들이 임시로 고용되고, 여기에 지역단체가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동참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사회 단체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새로운 공동체 정신이 꾸리찌바의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이전의 폐기물 투기지였던 비옥한 채소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⑤ 성공요인 및 시사점

꾸리찌바의 성공 요인은 첫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꾸리찌바는 꾸리찌바 종합계획을 토대로 환경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1975년 토지이용법률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환경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정책이 도시정책과의 조화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종합적인 계획과 제도적 요인이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도시에 관한 발전적이고 일관된 철학을 가진 리더십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환경적으로 취약해져만 가는 도시를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방향으로 도시를 일관되게 발전시켜왔다. 대개 우리의 도시를 보면 시장 등이 바뀔 때마다 도시정책이 변화되고 도시계획 및 개발이 새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속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꾸리찌바에는 ‘자이메 레르네르’라고 하는 리더십이 강한 시장이 있었기에 도시개발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셋째,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공, 민간, 전문가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이다. 꾸리찌바는 공공, 시민, 전문가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협력체계 하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제5장

실무 기획 지침

제5장 실무 기획 지침

➡ 1. 지역 여건 확인 및 잠재력 조사

1) 자발적 주민의식과 공감대 형성

우리보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다무라 아키라(2005)라는 사람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사람 만들기’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기도 하였다. 즉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식변화와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살기좋은 도시, 농촌, 커뮤니티 만들기는 실천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

“주민들은 주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정주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자아의식을 가져야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자발적 주민의식 속에서 실천되기 위해서

는 우선 주민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주어진 생활환경속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고 필요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소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의 고유 업무로서 행정기관이 주도하여야 하며 주민들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는 의식도 변해야 한다. 주민들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주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정주공간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자아의식을 가진 생활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주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주체들 간에 주체적인 의식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면 할수록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연대감은 자신이 속한 정주공간에 대한 애착심, 자부심, 소속감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마을과 같은 소규모 공간단위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고 도시, 지역차원의 활동으로 확대되어 전개될 수도 있다. 또한 하천, 공원과 같은 도시나 지역 내 특정주제공간을 대상으로 실천될 수도 있다.

일본 히노(日野)시는 시민들이 직접 환경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추진한 사례이다. 백지 단계에서부터 공모에 응한 109명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히노시의 환경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며, 시민들이 만든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나 집행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히노시의 사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의식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특정의 소수나 특정사회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도시나 농촌, 마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여야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 내 특정의 소수나 특정사회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소속된 도시나 농촌, 마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여야 하며, 개별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우리의 경우 정주의식과 공동체적 연대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총량적이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민감하게 됨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주민의식과 공감대 형성(consensus building)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의 선을 위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봉사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경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의식과 공감대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며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하다는 본질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인내와 노력을 중심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성공사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전체주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적절히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여건과 한계 내에서 자발적 주민의식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는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참여 동기(motive)의 부여이다. 주민참여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공동체가 인식하는 현안과제로서 전체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적절히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할 경우 주민들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성취감을 제공하고 후속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2) 사업추진팀 구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추진 팀은 특성에 따라 지자체조직, 민간조직, 민관협력조직 등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사업 추진팀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시너지(synergy)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국내외 유사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 시애틀 시의 경우 1988년 시장의 명령으로 「근린부서(Department of Neighborhoods)」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일본 세타가야구에서는 1982년 「도시디자인실」, 1983년 「마을만들기 추진과」가 설

치되어 운영된 바 있다(광주광역시 북구, 2002).

또한 국내사례로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정책과」와 같은 전담조직을 들 수 있다. 광주시 북구청에서는 1997년 7월 공무원조직으로는 전국최초로 「총무과」내에 「주민자치팀」을 신설하였다. 「주민자치팀」은 2000년 8월 「주민자치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03년 12월에는 「주민자치과」내에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에는 「자치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치정책과」내의 대표적인 전담조직인 「마을만들기팀」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동 특화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투어코스 개발 및 보급, 북구 생태문화네트워크 추진, 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 문화살리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1]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만들기 전담조직 구성사례

추진일정	추진내용
1999년 7월	「총무과」내 「주민자치팀」 신설
2000년 8월	「주민자치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과 신설
2003년 12월	「주민자치과」내 「마을만들기팀」 신설
2005년 10월	「자치정책과」로 부서명칭 변경

자료: 광주광역시 북구, 2006. p13

“지자체는 지원센터 등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

주로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고 있는 이러한 전담조직은 다양한 지방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지역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지자체에 소속된 다양한 부처의 종합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수직적인 지자체의 업무구조를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담조직은 지자체의 각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 총괄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의 초기단계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경우 1987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소구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73개 그룹을 주변 환경, 거리조성, 네트워크, 공공시설 및 교통, 역사문화, 각 연령층별 활동 등 7개 테마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광주광역시 북구 2002. p116).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6월 24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북구청 내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3대 운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마을만들기 사업설계 및 디자인 지원, 지속·반복적인 강좌 등 전문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인 리더 양성, 마을만들기 체험활동 및 마케팅 활동 전개,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9) 가칭 ‘지원센터’의 경우 지자체내에 설치될 수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 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위원회 및 센터’로 개편하여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각 행정동 단위에서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동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무소의 일부공간을 개방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교양, 사회교육 프로그램, 정보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그림 5-1] 사업추진팀 구성형태



자료: 국가균형위 · 국토연 · 지방행정연, 2006, p20 참조하여 재정리

10) 그러나 주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면 행정의 부속기관으로 변질되어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을 서구의 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위원회 및 센터’로 개편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 커뮤니티센터는 주민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해가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조직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커뮤니티 차원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공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기초자치체 차원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01년 6월 15일 결성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2005년 2월 17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수 4인, 전문가 4인, 시민단체 3인, 공무원 5인, 구의원 3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매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사업심의와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해 12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다.



2. 주체별 역량 강화와 시너지 제고

1) 리더의 발굴과 양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활동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현장리더의 존재유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 즉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추진하거나 민간, 즉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개인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거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에서도 우수사례의 이면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애틀 시의 경우 1988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했던 찰스 로이어(Charles Royer) 시장과 헌신적인 커뮤니티 활동가인 짐 디어스(Jim Diers)와 같은 인물이 리더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활동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世田谷區)의 경우에도 1975년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이 주민 참여를 통해 구 행정을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내에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 광주시 북구의 경우 민선구청장이 관 주도적 행정체제를 주민참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또한 마을만들기 3대 운동 제시, 구청내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의 설치, 조례의 제정,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방

법론을 제시하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차원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가능하였다. 서울시 광진구 노유거리의 경우에도 김분난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국장이 실무책임자로 적극 활동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설계 기획추진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협의체·전문가·행정집단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구성에 관여하였고 전선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협의를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의도하는 주민 자율적이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봉사형 민간리더를 중심으로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구 삼덕동 문화마을 만들기를 실천한 김정민 국장의 경우 지역토박이가 아니었으며 활동초기단계에는 관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주민의 호응도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헌신적으로 10여 년 동안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서 현장리더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이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헌신적인 리더의 지속적인 활동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리더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봉사형 지도력(servant leadership)을 갖추고 있는 존경받는 인격적 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리더가 선정된 뒤에는 리더 그룹(Group)의 육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 주변 지역의 리더와의 경험 공유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한다.”

우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현장리더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다무라 아키라, 2005). 그러

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리더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지역의 사회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리더의 활동에 무관심하게 되거나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리더로서 활동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다.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형 지도력(servant leadership)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격적 인사가 현장리더로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지역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현장리더의 발굴이 어려운 경우 굳이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기위해 노력하기보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리더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리더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발굴된 리더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시키고 앞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방문토록 하고 그 지역의 리더와 경험을 공유토록 한다.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단위에서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활동리더의 발굴과 육성뿐만 아니라 리더의 활동을 전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리더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리더의 경우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비협조로 고독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나 실무진이 있어 현장에서 리더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리더그룹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들

은 리더와 함께 현장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체험하게 되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신감도 가지게 되며 좌절과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 인터뷰 결과 대구 삼덕동 문화마을의 경우 김정민 국장은 부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인태연이라는 리더가 있었지만 상가변영회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육, 연수 및 평생학습체제

인간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평생 동안 학습이 필요한 존재이며, 이러한 재교육,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활동도 평생학습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은 어른, 노인과 같은 성인계층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나 청소년집단,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향후 성인이 되어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교육교재를 준비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직접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이시카와 에이요(石川榮耀)같은 유명한 도시계획 실무자는 종전직후인 1948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도시 계획 이야기』를 출판하기도 하였다.(다무라 아키라, p.86).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개인 또는 집단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호학습과 교육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마을 및 지역에 대해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고 함께 정주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례 답사, 주민자치학교, 참여강좌, 인재육성 교육 등의 다양한 학습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아직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해 볼 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주민과 함께 정주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지역사회의 생활개선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학습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활동의 형태와 방식은 주민의 성숙도와 참여정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와 같은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 발전 워크숍



제6기 북구 주민자치학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마을의 인재육성을 위해 활용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습활동사례들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2006). 광주광역시 북구는 1999년부터 마을 만

들기 위원회, 광주YMCA, 전남대 법률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의 경우 이론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사례발표(presentation), 분임토의 등의 방식을 통해 참여식 교육을 실현하였는데,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자치강좌는 26개 동을 대상으로 54회가 실시되었으며 3,742명이 참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평생학습 주민축제, 토론회·세미나·워크숍 개최, 국내외 선진지역 견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었다.

[표 5-2] 인재육성을 위한 광주시 북구의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실 적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연계 동별 순회교육 실시 【제1강】 주민자치센터와 마을 만들기 【제2강】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제3강】 무엇을 함께 할까? 【제4강】 식물지식과 화훼 가꾸기 【제5강】 아름답고 표정 있는 마을 만들기 【제6강】 우리 마을 풍경 찾아내기 등	26개동에 걸쳐 총 54회 개최하였으며 3,742명이 참여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자치의식 함양 강좌 등	7회 2,900명
평생학습주민축제	자치사례 발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 발표회	6회 9,000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	20회
국내·외 선진지역 견학	마을 만들기 벤치마킹	일본 2회 16명, 국내 12회 420명

자료: 광주광역시 북구, 2007; 2006

3) 전문가 역할과 컨설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마을단위에서 추진하는 경우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식 있는 주민과 현장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담장 허물기,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꽃길 가꾸기, 주민문화행사, 벽화그리기와 같은 활동의 경우 현행 법률의 틀 속에서 자유롭게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세련되고 높은 수준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거나 도시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경우 문제는 복잡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일부전문가들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지자체공무원, 지역사회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활발한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참여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전문분야에 치중함으로써 학제간(Interdisciplinary) 상호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조경, 미술,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한다. 전문가는 주민과의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적합한

전문가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지자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준전문가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변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장의 협조와 제도개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공무원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민간의 싱크탱크와 컨설턴트 중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과 리더가 활동에 대한 의욕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몰라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목, 건축, 조경,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인력풀(pool)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획수립과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간, 주민과 지자체간에도 갈등이 발생하여 활동이 지체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싱크탱크로서 참여하여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갈 경우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 초보단계인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전문가는 주민과의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구상, 계획수립과 관련된 이슈점검, 전략도출, 계획수립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히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명심하여야 할 사실은 전문가는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4) 주체별 역할정립 및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 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시민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역할정립과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정 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정 또는 정비, 대국민 홍보,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제공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제도적, 행정적, 재 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 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공모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를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자체는 전담조직 설치, 전문가 파견 등 각종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은 조직을 구성하여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 및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자체 행정운영시스템이 개선되고 공무원들의 의식도 변 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공무원들은 중앙정부와 같은 상부 기관, 지자체장과 같은 상위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익숙해져 주

민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요구는 업무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뒤지는 경 향이 있었다. 또한 주민이 제시하는 일상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반면, 지자체의 행정조직은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부서간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업무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 무처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전담조 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자체장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 으로 중요하다. 지자체장의 태도에 따라서 또는 지자체장의 교체에 따라 활동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의 교 체와 같은 외부환경변화에도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 례제정,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협정, 예산과의 연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객관적 입장에서 내부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 스스로 일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부 갈등을 중재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경우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줄 이고 필요한 시설물을 적시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민주도의 지역만들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스스로 자치위 원회와 같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히 운영하여야 한다. 이미 결성된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의 도움을 얻을 경우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밀진단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3. 민관 협력 파트너십과 상향식 접근

1) 민관 협력 파트너십 모델과 적용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선도적 시민운동가나 시민단체, 지자체 등 특정조직이 주도하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조직이나 개인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주민들의 호응과 과급효과, 지속성이 낮은 경우도 많았다.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역할을 상호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국가균형위 · 행정자치부, 2006. pp46-47).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사회(communitiy)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지역단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연고기업, 상공인단체 등이 함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원칙” 아래에서 지역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communitiy)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제안과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단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연고기업, 상공인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이나 상인단체는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향후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현재 일부 기업은 농촌을 대상으로 1사1촌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의 범위를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지자체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재정과 법 · 제도 등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을 위한 행정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제를 혁신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주체간 적절한 자원부담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말단 행정기관이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오히려 시민생활의 최전선 행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혁신해나가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생활행정기구로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과 활동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5-2] 참여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방식



자료: 국가균형위원회 · 행정자치부(2006) p.46

중앙정부는 참여적 지원자로서 지역단위의 사업추진을 법·제도·정책·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역을 도시·농촌·섬·어촌·산업단지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주민 자율적 주도와 상향식 모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추진 및 집행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의 전체 과정, 특히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문가집단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공청회나 단기간

공람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단위의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을 법, 제도, 정책,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공동체 차원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지역단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전과 실천목표를 설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준비, 의견조율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신과 오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경우 구역경계의 설정이나 변경, 계획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계획에 대한 승인권한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건교부장관 등 차상위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관이 계획수립과 승인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생활권 단위의 주민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구역과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5-3>은 현행 도시계획제도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구역설정, 승인, 공간적 범위,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 및 범위, 계획심의 방식 등 접근방식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주민은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추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자율적 주도로 추진하도록 한다.”

[표 5-3] 현행 도시계획제도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방식의 차이

구 분	현행 도시계획제도 ¹¹⁾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구역설정 및 수립주체	• 자치단체장	• 마을, 시/군 단위 주민조직체
승인권자	• 광역시·도지사, 건교부장관 등 상위기관장	• 마을, 시/군 단위 주민조직체
공간적 범위 및 생활권과의 관계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관할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 동 단위를 기초생활권으로 설정 • 지구단위계획은 기성/신시가지 일부 • 기타계획은 사업성격에 따라 구역경계설정 및 세분	• 상업지역, 아파트단지, 역사문화 보존지역, 하천 등 다양한 지역과 주체공간을 범역으로 설정 •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계를 기초 생활권(마을)으로 설정
계획수립 과정·방식	• 시/군/구와 계약 체결한 전문가 집단(전문용역업체)이 계획수립 • 비공개적 방식으로 계획수립 • 전문가집단은 계획수립 후 역할 종료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목적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여 설득 • 주민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수립 •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계획 내용·범위	• 법률, 지침,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계획수립 • 구역지정조건과 계획수립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와 수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 •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내용보다 종합적으로 접근 • 주민참여로 대상지의 특성 파악이 용이
주민참여 방식과 형태	• 계획(안)이 완성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지구단위계획은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개최 • 결정고시 후 일반열람	• 계획수립초기부터 주민 참여 • 주민이 계획내용을 이해 •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제시
계획심의방식	• 지방의회의견 청취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광역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은 중도위 심의)	• 자생주민조직이나 주민조직체에서 심의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 심의

11) 기존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말함.



4. 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

1) 사업 구상, 기획 및 목표 설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계획의 수립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역의 미래상과 비전을 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며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다. 왜냐하면 지역을 살기좋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지역의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생활자로서 주체이며 수혜자인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일본은 마을 만들기를 행정의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민들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마을 만들기를 시도한 나고야시의 사가에 히가시 지구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마을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한 좋은 사례이다. 마을 만들기 계획안 작성에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전체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수립하였고 단순한 계획구상을 넘어 디자인과 설계영역까지 확대하여 지역의 고유 특성을 담으려는 노력과 독특한

특색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미국의 시애틀시의 경우는 행정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이다. 근린계획 수립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미래 공동 비전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가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밑그림 구상과 청사진 정립에 크게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심분야를 주제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관심에 기초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구상과 기획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안 수립이 있어야 한다. 사당동 양지공원의 경우 주차장이 계획되었던 것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원화한 사례이다. 조성과정에서 워크숍을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되었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들의 의사반영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인사동은 인사동 길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열 두 가게 부지가 건설회사에 매매 계약됨에 따라, 도시연대와 가게주인들이 작은 가게가 인사동 분위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살리고자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의 피츠버그와, 클리브랜드, 볼티모어, 영국의 글래스고우는 환경오염과 심각한 경제침체, 마약과 폭력 등 도시의 사회문제를 시민주도의 캠페인 등을 통해서 개선한 사례이다.

“지자체는 사업을 구상할 때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참여방법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참여방법과 함께 자연스런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성숙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치요 및 요시쓰카 지구와 오사카시 히라노시의 경우는 오리엔티어링이나 흥미로운 마스터플랜의 제시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기초한 상향식의 주민주도형이 되어야 하며, 주민조직화와 지역현황 분석 과정을 통해 지역의 비전과 계획안을 설정하도록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기존의 하향식 관주도형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 손으로’라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기초한 상향식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상향식 주민주도형으로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구상 및 목표 설정은 다음과 같이 ①주민조직화(주민네트워크 형성), ②지역어메니티 자원 발굴, ③지역비전과 계획안 설정 등의 추진단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단계별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민참여 방법들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표 5-4] 참조)

1단계인 주민조직화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과 의무 등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주

[그림 5-3]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업구상 단계



민협의체는 해당지역에 필요한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하고 주민참여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참여지원센터(NPO, Non-Profit Organization)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반민 반관의 조직으로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지역현황 분석 단계로서 지역이 처한 현재 문제점과 위험요소, 지역 어메니티자원 등 지역의 장점과 기회요소를 찾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문제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 모임(User group)’ 등의 방법을 통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어메니티자원 발굴은 지역의 개성과 앞으로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할 때에는 지역주민 만큼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역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 전문가와 공무원이 같이 지역자원을 발굴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어메니티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것일지라도 활용방법에 따라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젊은 세대와 같이 참여하여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3단계는 지역비전(Vision)과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지역현황 조사를 통해 SWOT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의 장점과 단점,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계획포럼(Community

planning forum)’ ‘미래연구회의’ 등을 통해 지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마련하도록 한다.

“행정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며, 관련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타 지역의 정보와 경험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도울 수 있는 행정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며, 관련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고 타 지역의 정보와 경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진조사(Photo survey)에 의한 지역지도 만들기(Mapping)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한 답사여행 (Reconnaissance trip)

[표 5-4] 단계별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예시

주민참여 방법		내 용
조직 구성 단계	활동주간(Activity week)	한 주를 지정하여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으로써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유도
	설명 워크숍(Briefing workshop)	적절한 설명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 및 참여 동기 부여
	지역 탐구(Community profiling)	도면화 작업을 통해 마을의 현실 및 문제점 확인
	마을 계획 사무소 설치 (Neighbourhood planning office)	전문사항 및 협의장소 등 교류를 위한 장소 제공 공동계획의 요점 제공
	참여자 모임(User group)	커뮤니티 계획의 중요 요소이며, 사업에 전개하는 주체인 사용자 그룹의 유지와 관리
어메니티 자원 발굴	다이어그램(Diagrams)	다이어그램차트를 활용하여 복잡한 이슈 및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함
	전자지도(Electronic map)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마을관련 의견 제시 및 조사
	몽타주(Elevation montage)	사진을 나열하여 이어붙인 것으로 마을건물구조와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함
	아이디어 경쟁 (Idea competition)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
	지역지도 만들기(Mapping)	주민들이 직접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마을 이해 내용을 알아보는데 효과적임
	사진조사(Photo survey)	마을현황파악과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액션 플랜 수립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음
	답사여행(Reconnaissance trip)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을 조사
	마을 해설	마을을 전문가나 외부인과 함께 돌면서 지역주민이 직접 소개하고 장소를 해설
비전과 계획안 작성	우수자원 주민투표	마을의 자원을 나열한 후에 지역주민이 선정한 우수자원을 투표를 통해 선정
	모형 만들기(Models)	모형을 통해 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마을계획포럼 (Community planning forum)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디자인 페스티벌 (Design festival)	마을을 개발하려는 디자인 팀들이 마을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전시하는 행사
	미래연구회의	커뮤니티 멤버들과 개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비전과 계획안 작성	세부계획 워크숍 (Design workshop)	개발계획을 만들거나 거주를 향상시키는 계획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
	길거리 전시회(Road show)	전문 워크숍, 전시회, 심포지엄을 결합한 형태
	길거리 조사(Street small)	사람들이 많은 거리나 공공장소에 계획 내용을 게시하여 행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실내 기획 전시 (Table scheme display)	기획안의 모형에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법

2) 지역 자원 발굴 및 사례 조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어메니티자원 등 지역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지역자원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메니티란, 지역 고유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쾌적함, 즐거움, 건강함, 풍요로움, 친밀감 등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성과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속성을 말한다. 즉 생태적 · 심미적 · 인문적 가치가 농촌의 사회적 상황과 외부적 수요에 의해 외부경제의 형태로 공익(public good)을 제공하거나 내부경제화의 원리에 의해 사익(private good)을 창출하는 유무형의 자원 일체를 지칭한다.¹²⁾

따라서 어메니티자원의 발굴은 지역의 관광, 경제,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지역의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어메니티 지역자원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자원을 발굴 할 때는 많은 양의 자원과 정보를 구축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찾는 것보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An amenity may be defined as a location-specific good.....first of all an amenity is a good” (Diamond, D.B. & Tolley, G.S., The Economics of Urban Amenity, 1982:5) 해석하면 ‘특정 장소(땅)에서 얻는 이로움’이라 할 수 있다.

지역자원은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이 강조되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여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서에 반향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발굴해 낸다면,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강력한 흡인력을 지니는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면서도 개성 있는 자원을 지역자원으로 발굴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개성은 어느 지역이나 반드시 존재하지만 막연히 보고만 있으면 차이점을 구별하거나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성과 개성 있는 지역자원과 정보를 아무리 많이 구축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의미와 감동이 퇴색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치관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새로운 개성이나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창조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원의 발굴은 다음과 같이 ‘예비조사’, ‘조사계획’, ‘본 조사’, ‘인벤토리 작성’, ‘자원활용 모색’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예비조사는 각종 문헌과 인터넷,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자원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각 특성에 맞게 분류하는 단계이다. 조사계획에서는 조사일정과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면접, 관찰, 실험 등을 통한 본격적인 지역자원 조사를 계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달리 자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조사계획 단계에서 수립된 계획과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계이다.

보통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사람들과 면담을 통한 면접조사와, 사진 등을 활용한 관찰조사, 음이온 측정, 수질 측정 등의 간단한 실험조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림 5-4]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 과정



자료 : NADO(2003)

인벤토리 작성 단계는 예비조사, 본 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그 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류체계, 특성, 현황 등으로 나누어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구축된 지역자원을 홍보책자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화 하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 활용 모색은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지역자원은 그 특성에 따라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산품과 같이 직접 상품화가 가능한 지역자원, 지역의 전설이나 인물이야기 등 영상물이나 소설, 공헌물 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지역자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경관을 활용한 문화컨텐츠로 이용 가능한 지역자원, 각종 축제 및 해수욕장, 휴양림 등 관광자원화로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신사업 개발이

가능한 지역자원 등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자원의 발굴은 주민참여에 입각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뿐만 아니라 특성과 특색 있는 자원, 고유한 정체성과 함께 향유해온 공동체성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자원 발굴은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체성을 살린 자원발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을 발굴함에 있어서 쉽게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가나 행정이 먼저 지역자원을 규정하고 분류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경향이다.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획일적이고 복잡하며 어렵게 구성된 지역자원 체크리스트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참신하고 특색있는 자원발굴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조사할 때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과 함께 발굴하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주민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자 한다면 워크숍이나 주민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화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공론화는 발굴 가능한 지역자원들에 대한 지역주체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상호이해의 장이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상생과 상호협력의 과정이다. 공론화 과정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행정의 정책이나 시책 시행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교육하거나 선포 또는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공동의 노력으로 실천해가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대화하

고 지역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배우는 자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합의의 과정을 통해 지역자원의 발굴이 이루어지면 발굴된 지역자원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며 확인 가능하고 알기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작성과 공공장소의 전시 등과 같이 지역자원 발굴현황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5-5] 서천군의 지역자원 인벤토리 작성 사례

기 호	I-1	제 목	송림리 백사장	자원분류
				자연자원-생태자원-비육한토양(A-b-d)
				자원특성(개요) • 장항읍 송림리에 위치한 모래백사장은 염분과 철분 우리늄 성분이 많아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다고 함 • 매년 여름에는 '모래날'이라는 행사를 펼치고 있음 • 산림욕장과 함께 면해 있어 천혜의 휴양지 기능을 보이고 있음
위 치	장항읍 송정리			
IMAGE				
				자원특성(개요) • 매년 음력 4월20일이 모래날이라 하여 다수의 관광객과 피서객이 찾고 있음 • 앞: 갯벌(바다), 뒤: 모래와 송림(산림욕) • 하루 300명이 이 곳을 찾고 있으며, 모래날, 복날은 1일 1000명이나 됨 • 여름에 3개월 정도가 대부분의 방문객이 찾아옴 • 과거에 비해 모래양이 감소하고 있음
어매니티 속성				개발 및 관리방향
• 건강, 맑은 공기 • 자원간 연계성 효과 좋음 • (바다-갯벌-모래-송림-산림욕), 바람 • 경관 (바다, 송림), 낙조 • 산림욕 효용 → 피톤치드(phytoncide) : 방향성 물질, 살균, 살충성분, 초여름~가을				• 자연과 건강 테마(모래찜질 또는 해수욕 등) • 바다 먹거리 • 웰빙 산업과의 연계 • 부가가치 창출 경로 1), 2), 3), 5)의 방법이 가능

[표 5-5] 자원특성에 따른 지역자원 활용방안 모색

구 분	내 용
직접 상품화가 가능한 지역자원	• 지역의 농·특산물이 주로 해당됨 • 보성녹차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지역 환경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가의 브랜드로 탈바꿈한 사례로 유명함
문화컨텐츠로 이용 가능한 지역자원	• 영상물, 소설, 공연물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역사, 인물, 전설 등 - 다양한 스토리 가운데 영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는 선택되어 바로 영상물, 소설, 공연물로 기획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 • 청각자원(조류, 곤충, 물소리 등) - 일본의 경우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금연지속효과, 숙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곡을 휴대전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각자원(경관자원 등) - 자연경관과 지역의 개성 있는 도시경관을 디지털화하여 사진 및 이미지를 제공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자원	• 지역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장소를 상품화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 갯벌, 해수욕장, 휴양림, 체험마을, 철새도래지, 각종 축제 등이 이에 해당됨 • 현재 운영 상태와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검토
아이디어 신사업이 가능한 지역자원	• 지역자원이 생산요소로서 일부 투입되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자원의 속성을 활용 • 일본 이브스키는 모래찜질의 효과를 밝히고 모래온천을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임
지역 이미지 향상 기여	•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합창단, 봉사단체, 풍물제 등은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 • 지역의 천연기념물,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 등 또한 이미지 향상에 도움 - 미국 볼티모어의 대단위 야구장인 ‘오리올 파크’를 과거의 유명 야구장들이 사용하던 전통적 스타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애착심과 동경심을 불러일으킴

3) 사업계획서 작성과 공모 신청

“건교부와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와 건교부는 각각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행자부는 2006년 11월 「제1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공원, 도로, 숲, 마을, 자연경관 등 8개 분야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사업”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꽃밭·소하천 가꾸기, 담장허물기, 쉼터·녹지조성, 취약지 대청소 등 마을단위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우수계획을 선정·지원하도록 하여 주민 주도로 직접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사업”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패키지를 포함한 마을재창조 종합계획을 공모하고 30개의 지자체 및 해당마을을 선정하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마을의 주민들이 상호협력 하에 추진하는 행정+주민참여형 사업이다.

[표 5-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사업(행자부)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제1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	• 전국의 아름다운 공원, 도로, 숲, 마을, 자연경관 등 8개 분야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전국 확산	• 대상(1개): 상금 200만원 • 금상(3개): 상금 100만원 • 은상(6개): 상금 5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 각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우수계획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실행	• 10개 우수한 사업에 대해 2,000만원 내외의 예산 지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사업	•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재창조 종합계획을 공모하고 30개 지자체 및 해당마을을 선정	• 국가지정 시범지역 -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 -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 • 도지정 시범지역 -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 -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설교통부는「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을 촉발시키고「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표 5-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정 및 지원계획(건교부)

구 분	공모 · 접수현황	지정 및 지원계획	
		지 정	지 원
시범마을	44개 기초지자체에서 52개 사업 응모	32개소 이내	5억원 범위내
시범도시	80개 기초지자체에서 89개 사업 응모	5개소 이내	30억원 범위내

자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시범사업은 주민 주도의 시범마을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도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업 공모→시범사업계획서 작성→시범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평가→시범사업 선정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¹³⁾에 있다.

[표 5-9]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관련 지원 사업 현황

구 분	시행기관	사업 명
도시 차원	건설교통부	도시대상 평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환경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행정자치부	신활력 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마을 차원	문화관광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농림부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마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행정자치부	정보화 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3) 2007년 시범사업 공모(2006. 11. 24.~2007. 1. 26.) 결과 시범마을부문에 52개 사업, 시범도시부문에 89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시범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2007년 2~3월)를 거쳐 시범마을사업 16~32개소, 시범도시사업 5개소를 최종 선정코자 하고 있음. 2007년 4월 중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2007년 시범사업 공모기간(2006. 11.~2007. 1.)이 짧아 주민과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계획수립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모계획을 조기 발표하고, 2007년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전파할 계획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어메니티 마을 가꾸기’와 경기도 화성시의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근거로 한 지역 발전 도모와 지역이미지 쇄신을 목적으로 서천군의 어메니티 자원 조사와 활용계획에 바탕을 둔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서천군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1억원씩 총 21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어메니티 마을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① 지역 고유 브랜드 만들기 ② 숲 공원 생태계 조성 ③ 마을 경관 및 미관 개선 등 화성시가 보유한 자원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억 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제안서는 화성시 관내 579개 마을과 민간단체, 화성시 소재 대학이면 누구나 참여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액수를 선정하고 1개 사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가꾸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밖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차원의 유사 관련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도시대상 평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환경부의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

업’,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마을차원에서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마을 선정’,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시범마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의 추진의 단계는 보통 다음과 같이 ‘평가체계의 구축’, ‘응모대상 및 범위설정’, ‘지원내용 및 방법’, ‘세부추진 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체계의 구축에서는 시범사업의 목표와 이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지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평가분야 및 항목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공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의 평가지표 구성은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패널토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평가지표의 검토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패널토의는 평가지표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검토하고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유형과 체계의 구성, 평가기준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지표의 검토와 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조정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의 검토와 조정,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응모대상 및 범위설정은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자치구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마을 등 중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내용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정된 마을 및 지

역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및 절차, 세부 일정을 계획한다. 제출서류는 보통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신청은 읍·면·동이나 이하 마을에서 해당지자체(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5-5] 시범사업 추진절차



마을 및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성이 필수적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보통 ‘사업의 개요’, ‘사업추진내용’, ‘소요자원 및 예산’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사업의 개요’에는 사업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 추진주체의 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업추진 내용’에는 지역의 일반적 현황 및 사업관련 현황, 사업의 목표, 주요 추진내용,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등이 포함된다. ‘소요자원 및 예산’에서는 전체 사업 규모 및 기간,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세부예산 수립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사업의 취지의 명확한 파악’, ‘지역주민의 구체적 참여계획’, ‘추진내용 및 예산의 실현가능성’의 고려 사안이 다루어 져야한다. 첫째,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에는 우선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마을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라 할지라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가 힘들다. 둘째, 지역주민의 구체적 참여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모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지역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서 대부분의 공모사업에서 주민참여 의지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셋째, 추진내용 및 예산계획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내용이 부합하고 있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책정되었는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투입계획이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채택된 주민사업에 대해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은 마을이나 지자체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마을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공모신청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사업안 창출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의사를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행정과 전문가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개성 있는 사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4) 지역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

지방자치화 시대이다. 지자체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실현하는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 위해서는 성장 동력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홍보하여 외부의 자원과 자본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지역개발수단으로서 지역브랜드를 관측하고 마케팅 하는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지역브랜드 관측과 마케팅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할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브랜드는 그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여타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강력한 지역이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차별화된 강력한 지역이미지로서의 지역브랜드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방문객과 거주민, 투자자를 해당 도시로 유

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같은 유인효과는 결국 지역의 경제·산업 활동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일자리와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그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지역개발수단으로서 지역브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지역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 현황 및 자원조사’, ‘SWOT 분석(종합분석)’, ‘지역이미지 방향 설정’, ‘브랜드 개발’, ‘브랜드 강화전략’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다.

[그림 5-6] 지역브랜드를 통한 지역마케팅 전략 체계



지역의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현황과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는 역사

문화, 산업/기업/경제, 교육/대학, 자연생태, 특산물 등 다양한 어메니티자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원들 중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타 지역 주민, 내·외국인 관광객 등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 현황과 자원에 대한 조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자원도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주변지역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 분석뿐만 아니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조사한 후에는 이러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지역 내부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외부환경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SWOT분석은 지역의 핵심역량과 자원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경쟁 환경에서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핵심 이슈를 파악하여 지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지역의 이미지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이미지의 방향설정 단계에서는 SWOT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개성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색깔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이미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이미지 강화는

크게 ‘긍정적 이미지 강화’와 ‘부정적 이미지 해소’ 등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도클랜드는 도시 내 7지역의 역사성과 랜드마크 특성을 잘 보존하는 도시재개발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영국의 에딘버러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역사적인 도시환경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역사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내 경주시와 김해시가 각각 ‘신라’와 ‘가야’라는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대장간’, ‘스모그의 도시’ 등의 다양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1980년대 중반 이후 ‘늑에서 꽃이 피다’, ‘굴뚝이 소프트웨어로 탈바꿈하다’ 등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하여 1985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1970년대 심각한 경제 침체로 ‘오하이오의 사생아’, ‘미국의 겨드랑이’, ‘지옥에서 일주일 보낸 것과 같은 기분을 느껴보려면 클리브랜드에서 하루만 지내보세요’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녔던 미국의 클리브랜드는 ‘I ♥ Cleaveland’를 새겨 넣은 범퍼스티커, 머그잔 등의 제작과 ‘클리브랜드의 전망’, ‘미국은 1990년에도 세계를 이끌 것인가? 클리브랜드는 힘차게 그렇다고 말한다’ 등의 광고물 제작 등의 도시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미국 광고협회로부터 대상을 받았다. 또한 미국 볼티모어는 ‘범죄와 마약의 도시’에서 ‘믿음 캠페인’과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하였으며, 영국의 글래스고우는 ‘폭력의 도시’, ‘어둠의 도시’에서 도시이미지 마케팅을 통하여 ‘친근한 도시’, ‘문화의 도시’로 변모하였다. 아울러 공업도시에서 디자인의 메카로 발전한 독일의 에센

과 공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지역주민의 호응을 통해 개성 있는 지역의 이미지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적합한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시키도록 하자.”

지역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미지 방향이 설정된 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개발에서는 지역의 향후 이미지 설정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한다. 지역의 슬로건, 브랜드 이미지는 전문가가 지역의 시민여론 및 행정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시민의 여론이다. 아무리 잘 만든 브랜드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나라와 지역은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유의 특성은 지역의 정체성 및 개성을 반영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지리적 조건 등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구축 사업(하드웨어 측면), 전략사업의 추진(소프트웨어 측면), 전략적 홍보, 지역상품의 연계 등의 통합 마케팅 측면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지 슬로건과 지역의 상징이미지를 개발했다고 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도시브랜드를 형성하고 인지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서 이미지의 개발과

관리가 곧 브랜드 마케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도시브랜드는 지역 축제 및 이벤트, 지역상품 등과 일맥상통하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적이다.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으로 크게 ‘이미지 구축 사업(하드웨어 측면)’, ‘전략사업의 추진(소프트웨어 측면)’, ‘전략적 홍보방안’, ‘지역상품의 연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브랜드 강화 전략은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하나의 통합마케팅(IMC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개념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림 5-7] 통합마케팅 측면에서의 도시브랜드 강화전략



첫째, 이미지 구축사업의 추진은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가로조성, 창조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도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요소는 그 도시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 속에서의 기억에 남는 좋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브랜드로서 상징적인 건축이나 창조적인 도시개발이 적극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시브랜드로서 상징적인 건축물을 통한 지역개발수단의 국내외 선진적인 사례는 아름다운 건축으로 유명한 미국 볼티모어, 유럽의 문화수도로 인식되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미국 볼티모어는 쇠퇴한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해 도심내 항구를 중심으로 국립수족관, 오리올파크 등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립·재건축 하였다. 특히 오리올파크는 오늘날 사라진 과거의 유명 야구장들이 사용하던 전통적 스타일을 활용한 건축양식으로, 시민들에게 과거의 향수와 오리올파크에 대한 애착과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는 빈곤층 밀집 지역인 무어 강 서쪽 지역을 예술도시로 재개발하기 위해 ‘아트 존’을 설정하고 그 중심에 우주선처럼 보이는 쿤스트하우스라는 미술관을 건설하여 다양한 현대미술의 실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쿤스트하우스는 큰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모여들 듯 주변에 재즈바, 영화관, 아틀리에, 콘서트홀, 쇼핑센터 등 작은 공연장과 카페가 속속 들어서는 등 주변의 도시공간까지 문화적으로 탈바꿈하였다.

도시브랜드로서 창조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수단의 국내외 선진적인 사례는 유럽풍의 미국 애쉬랜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전통문화의 도시인 일본의 가나자와, 디자인 도시인 일본 구마모토, 가야의 고도인 한국의 김해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미국 애쉬랜드는 고급스러운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 대중소비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맥도널드를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관관리를 통해 고급문화, 엘리트문화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물의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범위한 도심재생계획을 추진하여 해안지역

을 어메니티가 활성화되는 장소로 재이용할 뿐 만 아니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본의 구마모토는 디자인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승화하기 위하여 아트폴리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고 건축물을 보존하고 새로운 예술적 건축물을 기존 전통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조성하였다. 한국에서는 가야문화의 공간구조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은 물론 가야문화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도시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한 김해시를 들 수 있다.

둘째, 전략사업의 추진은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문화는 지역이미지를 고급화 시키고 사람들을 단시간에 끌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지역 축제 및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신·구 도시의 아름다운 역사도시 공간을 지닌 영국 에딘버러는 국제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역사적 도시를 무대로 예술성을 갖춘 국제도시라는 도시이미지 형성에 성공하였다. 현재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은 50여 개국에서 700여 단체가 참여하여 연극, 뮤지컬, 서커스, 마술, 콘서트, 도시 및 건축물 전시회 등의 1,500여 편의 작품이 공연되거나 전시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앙굴렘은 만화축제를 통해 만화의 수도로 도시 이미지를 변화한 사례이며, 미국 애쉬랜드는 1935년에 시작된 셰익스피어 축제를 통해 유럽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셋째, 전략적 홍보방안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간(장소)과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분야, 교통 및 옥외광고와 관련되는 OOH Media 분야, 인터넷(On-Line) 분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 전략을 수립하도

록 한다. 또한 투자·기업, 관광, 정주환경 등 각 분야별로 도시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상품의 연계 개발은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한 지역 상품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이다. 긍정적인 지역의 이미지는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상품이 우수할 경우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하기도 한다. 지역상품과 지역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경기도 안성시를 들 수 있다. 안성시는 안성 지방에서 나는 유기(鎡器)를 주문하여 만든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된 안성맞춤의 정신을 활용하여 포도, 쌀, 인삼, 배, 한우 등 5개 품목을 ‘안성맞춤’이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로 개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각종품질 대상 및 브랜드 전략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안성맞춤의 도시, 安城’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지역이미지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자체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투자자, 기업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화시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Marketing)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 미국 뉴욕(I♥NewYork)의 사례와 같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브랜드 개발방안은 특히 세계적인 경쟁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 투자자, 기업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5. 사업 운영 및 관리 체계

1) 목표 관리와 평가 지표 작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바람직한 비전은 거주, 근로 여가 등에 대한 지역의 구조와 기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지역의 공동체가 확보되어 삶터, 일터, 놀이터로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이 확보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머물며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제반여건이 우수하게 형성된 장소에 대한 미래상의 구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일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미래상 구현에 대한 목표는 상이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미래상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거, 의료, 복지, 안전, 교통에 대한 기초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주환경과 공동체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력과 일자리가 풍부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서 활기찬 지역공동체의 창출에 기반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의 창출, 그리고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여야 한다.”

삶의 질이 보장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실현과 관리를 위해서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평가지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을 위해 평가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목표 및 비전정립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목표와 비전을 우선 정립하여야 한다. 책슨빌, 시애틀 및 오레곤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견의 수렴을 통해 목표 정립과 예비지표를 개발하였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의 목표와 비전이 설정되면 다음으로 지역의 살고싶은

[그림 5-8]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과정



지역 만들기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예비지표를 도출하고, 사회구성원 및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예비지표를 평가하여 최종 지표를 도출하도록 한다. 최종지표는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와 수정, 개별지표의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부여 과정 등을 통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작성은 정부정책의 실현의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효과적 방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실현목표에 대한 안정된 인지를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평가지표의 작성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고 고려되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공간의 질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애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가지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한 시애틀의 평가지표는 그

좋은 보기라 할 수 있다.

시애틀 지표는 시민네트워크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속가능한 시애틀’이 지역 내 이해집단과 시민들을 참여시켜 1990년부터 2년에 걸쳐 24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1993년 1차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1995년에 20여개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여 총 40여개의 지표가 시애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발되었다. 환경, 인구, 자원, 경제, 문화, 사회분야 등에 걸쳐서 약 4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시애틀 평가지표는 도시계획가, 공학가, 경제학자, 에너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표개발팀을 구성하여 정기적 토론과 연구를 거쳐 예비지표로서 29개 핵심지표 시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시애틀 시민 패넬을 구성하여 지표시안의 대중적 평가

[표 5-10] 시애틀 지표의 예시

부 문	지 표
환경	• 야생 연어의 산란을 위한 지역하천으로의 회귀수 • 보행자 편의기준에 맞는 시애틀 도로의 비율
인구와 자원	• 총 인구수 • 1인당 소비된 물의 양 • 1인당 발생되고 재활용된 고형폐기물의 양 • 1인당 가솔린 소비량과 차량운행 거리 • 1인당 소비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경제	• 10위내의 고용업체에 집중된 고용비율 • 기본적 필요성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평균임금을 위한 노동시간 • 가난에 직면한 어린이의 비율 • 중간 또는 저소득 세대주의 주택 보유가능성 • 1인당 건강 지출액
문화와 사회	•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태아의 비율 • 청소년 범죄율 • 공동체 봉사의 어떠한 형태에라도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 • 지역의 일반선거에 투표한 인구비율 •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이용률 • 예술에의 참여

와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여 10개영역 99개의 지표시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정책결정자나 일반시민들이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지표가 지나치게 많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지표 20개를 선별하였다. 측정가능성, 자료이용 가능성, 신뢰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개발된 시애틀 평가지표는 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문화와 사회 4개 항목에 걸쳐 평가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 평가지표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초하여 비전의 수립과 목표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현실적 실현을 유도하고자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그 지역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지표 등의 향후 지역의 미래 방향이 설정이 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행자부 및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 지원사업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이란 정책집행 또는 사업시행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과정평가의 하나로 집

행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며,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개선에 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노화준, 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분기마다 정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주도로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경우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기 또는 정해진 기간별로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상세한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신속히 사업 진행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의 중간시점에서 보고서 및 기타 점검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평가는 중간보고서의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실사도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추진실적보고서와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사업추진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각종 사유로 사업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 및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유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추출하도록 한다.

[그림 5-9]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절차 및 방법



자료) A Handbook for Program Managers and Researchers, World Bank, 1986을 수정·보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상의 문제점을 통해 향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용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사후 관리와 인센티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 방안의 마련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는 주로 사후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후평가는 사업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장래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량적, 정성적 방법 등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정량적 평가는 필요한 항목을 세부항목까지 작성하고 중요도에 다른 배점을 전문가 평가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의 중요도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성적 평가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의견서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각 항목의 특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나 주관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외국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선정과정에서의 평가와 사업종료시점에서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방식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혼용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의 공정한 보고상황과 행·재정적 지원 상황, 고용평가, 회계감사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은 정책목표와 실제사업과의 일치여부를 주로 평가하며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선정 당시에 설정한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와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평가의 지표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국토환경계획, 산업발전전략 등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책, 특히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과 정합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지역의 각종 발전정책이나 계획,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잘 조화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사업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의 활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후평가 결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의 사례로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또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나 불이익을 고려토록 한다.”

지속가능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평가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마련과 더불어 최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최종평가의 결과 잘한 응모대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중대한 문

[표 5-11] 최종평가기준 및 지표 예시(건교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구분	기준	지표
정책 효율	지역자원의 활용성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여론수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투입자원의 관리실태 등
	보고(서)의 신뢰성	월별·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최종보고서의 정확성·신뢰성 등
정책 집행	정책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행정이나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지역의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등
	거버넌스체계의 구축과 활용	시민참여의 정도 민-관-학 협력체계의 구축 시민의견 반영 및 시민의 의사결정력 등
	지자체의 대응노력	대응자금(matching fund) 투입 및 재정노력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행정조직 구성 지자체장의 관여정도 등
정책 성과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계획지표의 달성정도 계획수립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등
	사업의 효과성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 사업비 대비 효과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개선효과
	사업의 파급성	사업결과의 타 지자체 파급성 전략추진의 수월성 계속적인 사업의 가능성 등

제점을 유발시킨 응모단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결과 발견된 우수사례를 부문별로 선정하여 여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benchmarking)자료로 활용하도록 우수사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준은 우선 정부가 과제별 자체평가 제도를 운용할 때 활용하는 평가의 기준을 토대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 및 관리의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광주광역시 북구, 2007,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_____, 2006,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총람(2000-2005)
 _____, 200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건설교통부,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
 _____,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정 및 지원(안)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2007년 2월 1일자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유형별 해외사례
 _____, 행정자치부,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과 과제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김분남, 2006, 『민관협력의 새로운 가능성-노유거리 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pp.51-59.
 김정섭, 2002, 「유럽연합의 농촌발전전략」, 계간 「농정연구」, 농정연구센터.
 김창석 등,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대한주택공사.
 다무라 아키라(강혜정 역), 2005, 「마을 만들기의 발상」,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81.
 류중석, 2006, “도시재생사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서울: 제이플러스에드.

박영춘, 류중석, 2000, 뉴버니즘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5호), pp.77-86
 박용남, 2002, 『꿈의 도시 꾸리짜바』 녹색평론사.
 _____,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 정부, 지자체, 전문가, 시민의 노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서울: 제이플러스에드.
 박재길, 2006,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서울: 제이플러스에드.
 _____, 이왕건 외,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연자 2006-5
 성경룡,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서울: 제이플러스에드.
 _____, 200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Monograph.
 송미령, 2006,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서울: 제이플러스에드.
 송미령 외, 2006, 「농촌의 변화를 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06, 「농촌 지역혁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http://www.anyangriver.or.kr/html/01-2.htm>).
 이명규, 2006, 주민참여 속에 마을 ·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와 추진방안,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혁신대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 발표자료, pp.1-19.
 _____, 2006, 주민참여속의 마을 · 도시만들기, 21세기 국토포럼 · 국토연구원 공동주최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만들기 발표자료, pp.23-74.
 이왕건, 2007, 민관협력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방행정 제56권.
 _____,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주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pp.1-12.
 _____, 2006,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해외사례, 21세기 국토포럼 · 국토연구원 공동주최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만들기 발표자료, pp.103-118.
 이재준, 2007, 시민참여 도시개혁운동의 변화와 전망, 경사연 2007년 토론회.
 _____, 2006, 「국내외 어메니티 정책 및 계획사례」, 『월간 국토』통권298호 pp.45-59.
 이재준 외, 2005, 지역환경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_____,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8권-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_____, 2004, 마을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환경부.
 주간한국, 2005년 6월 30일자. [하천, 되살아나다] 이필구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사무국장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506/wk2005063019142737040.htm>).
 환경부, 2003, 2002년도 하천수 수질현황.

小泉秀樹, 2006, 『まちづくりと都市の計画 システム』, 국토연구원 주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pp.19-47.

林泰義, 2006, 『日本における30年のまちづくりの流れ』, 국토연구원 주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pp.1-18.

小泉・石井・渡辺, 1997, "シアトル市近隣計画プログラムにおける計画公定システムに関する分析—代表性と整合性の確保に着目して—", 都市住宅学, vol.19, pp.,33-38.

西尾勝, 1975, 『権力と参加』, 東京大学出版会.

Appleyard, D., 1981, Livable Stree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vidoff, P., 1965,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31, No.4

Diers, J., 2006, Seattle's Department of Neighborhoods: Empowering Communities to Make a Livable City, 국토연구원 주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pp.106-133.

Friedmann, J., 1973, Retracking America :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Anchor Press.

Innes J E., 1996, Planning through consensus building: A new view of the comprehensive planning ideal,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 pp.460-472.

Jacobs, J., 1961(1984 Edition),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The Failure of Modern Town Planning, London.

Lynch, K., 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The MIT Press.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